

치솟는 물가·금리...월급 빼고 다 오른다

일 년 넘게 이어지는 코로나19 침체 속에서 지역 물가와 금리는 치솟는데 소득은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광공업 생산은 회복세를 띠고 있지만 투자와 고용, 소득 증가가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광주시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월 평균 가구 소득 400만원 이상인 가구 비중은 23.0%로, 2년 전인 2018년(30.5%)보다 7.5%포인트 감소했다.

소득 구간별로 비중을 보면 200만~300만원 미만 17.2%, 300만~400만원 미만 17.1%, 400만~500만원 미만 15.9%, 500만~600만원 미만 9.8%, 600만~700만원 미만 5.7%, 700만~800만원 미만 2.3%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풀어 꺼져가는 소비 불씨를 지켜왔지만, 코로나19 이전으로 소비가 회복되기도 전에 물가는 그칠 줄 모르고 오르고 있다.

5월 농축수산물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썩춤'...장바구니 부담 가계대출금리도 슬금슬금...전세가 2년 2개월만에 최대폭 ↑

월 평균 가구 소득 400만원 이상 23%...2년 전보다 7.5%P 줄어

광주·전남 물가는 지난해 10월 '마이너스' 상승을 끝으로 7개월 연속 오르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광주 2.7%·전남 3.1% 상승했다. 광주 물가는 지난 2017년 1월(2.7%) 이후 4년 4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고, 전남은 지난 2012년 1월(3.4%) 이후 무려 9년 4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실제 체감하는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전국적으로 3.3% 오른 가운데, 지역은 이보다 높은 광주 3.5%·전남 4.3%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광주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하며 장바구니 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식재료 값이 오르면서 외식 물가 역시 6개월 연속 전보다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 외식 물가 상승률은 올해 2월부터 2%대에

접어들었으며, 지난달 상승률은 3.3%를 기록했다.

지난달 광주 전세가 상승률은 1.1%로, 지난 2019년 3월(1.2%) 이후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광주지역 월세 역시 2019년 3월(-0.1%) 이후 2년 2개월 연속 전년에 비해 상승 추세다.

고물가(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시장 금리에 반영되고 있다.

지표 금리인 국제 금리가 슬금슬금 오르면서 시장 금리를 밀어 올리고 있다.

한은의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4월 예금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2.91%로 직전 저점이었다. 지난해 8월(2.55%)보다 0.36%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73%로 지난해 8월(2.39%)보다 0.34%포인트 높았다. 일반신용대출 금리(3.65%)도 지난해 8월(2.86%)과 비교하면 0.79%포인트 상승했다.

코로나19 생활고를 견디기 위한 생계 대출이 늘면서 광주·전남을 1분기(1-3월) 신규 가계대출은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겼다.

1분기 지역 신규 가계대출은 광주 5554억원·전남 4522억원 등 1조76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분기 가계대출액이 1조원을 넘긴 것은 관련 통계를 낸 지난 2008년 1분기(1299억원) 이후 처음이다. 올해 들어 가계대출은 지난해 1분기(2601억원)의 3.9배(287.4% ↑) 수준으로 불어났다.

올 1분기 광주·전남 취업자는 168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광주 1만1000명·전남 1만4000명 등 총 2만5000명이 줄어든 상태다.

제조업 생산과 수출 등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찾아가고 있지만 '고용 증가 없는 경제 지표'라는 내수 선순환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247.43 (+23.20)
↑ 코스닥	990.19 (+9.09)
↓ 금리(국고채 3년)	1.191 (-0.015)
↑ 환율(USD)	1113.60 (+0.30)

코스피 사상 최고치 '턱밑'

3일 코스피가 5거래 연속 오르며 사상 최고치에 박박 다가섰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23.20포인트(0.72%) 오른 3247.43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인 3249.30을 돌파하는 듯했으나, 장 막판에 소폭 밀리며 사상 최고치 경신에는 실패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0.73포인트(0.02%) 오른 3224.96에서 시작해 상승 폭을 확대했다.

이날 외국인인 2385억원의 순매수했다. 특히 코스피200 선물을 1조원어치 순매수했다.

기관은 4510억원의 매수 우위를 보였다. 기관 중에서는 연기금 등이 지난 3월 15일(1105억원) 이후 최대인 1110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6879억원을 순매도했다. 유가증권시장 '대장주'인 삼성전자(+2.48%), SK하이닉스(+2.38%) 등이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강세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삼성SDI(+1.47%), LG화학(+0.62%), 삼성바이오로직스(+0.73%), 기아(+0.81%) 등 다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체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연합뉴스

“수산업 저해하는 풍력 특별법 폐기를”

전남 수산업계 목표서 시위

전남 수산업계가 지난 2일 목포에서 수산업을 저해하는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을 철회하라는 시위를 벌였다.

수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 한국수산업종연합회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등 200여 명이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목포지역 위원회 사무소 앞에 모여 '풍력발전 특별법 규탄대회'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이 특별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인허가 통합 기구인 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하고 산업부에 사무국을 설치해 인허가 면제 및 일괄처리를 통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회를 주최한 한국수산업종연합회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는 “수산업 말살 행위인 특별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면서 “특별법안은 오로지 해상풍력 추진에만 초점이 맞춰진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 아파트값 고공행진

5월 매매가 0.21% 올라...올 들어 최대폭 상승

복구 0.35%...광산구 0.18% '전 주보다 2배'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광주의 집값은 오히려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1년 5월 5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1% 올랐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전주(0.13%)보다 상승폭이 확대된 모습이다.

특히, 광주의 집값은 복구를 중심으로 오르고 있다. 전 주 0.24% 올랐던 복구는 지난달 말 0.35%나 상승하면서 광주 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광산구가 0.18%로 전주(0.09%)에 비해 상승률이 2배 증가했고, 동구도 0.16% 상승을 기록했다. 이어 남구 0.15%, 서구 0.09% 등 순이었다. 복구의 경우 양산동과 신용동 신축 위주로 매매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광산구는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이 있는 월계동 위주로 가격이 오르는 추세다. 동구는 학동4구역 인근 지역 위주로, 남구는 정주여건이 양호한 주월동 신축 위주로 상승

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부동산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2.54%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누계 0.08%에 비해 30배나 증가한 수치다.

광주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중저가 단지의 실수요 위주 거래도 활발하고 도시철도 2호선과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호재 기대 속에 신축 수요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 속에 막바지 불 이사철을 맞아 상승 폭이 커진 듯 하다”고 분석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농협은행, 순천에 종합자산관리센터 개설

부동산·세무서비스 등 제공

고객 자산관리 특화 점포인 'NH All100 종합자산관리센터'가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순천에 마련됐다.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는 농협은행 순천시 지부에서 'NH All100 종합자산관리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NH All100 종합자산관리센터는 고객 자산관리 서비스에 특화된 점포로서 일반 영업점보다 전문적인 부동산·세무 등의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른 은행과는 달리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한 농협은행의 고객층을 위해 전국을 무대로 하는 대중적 자산관리를 추구한다.

지역별 금융자산 1억원 이상 WM(자산 관리) 고객 기반 우수점포 중 전문 인력 배치가능 여부, 로

열라운지 운영 및 사무소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해 전남에서는 순천시지부가 선정됐다.

이 센터는 앞으로 지역별 종합자산관리 분야 거점포 역할을 수행한다.

농협은행은 현재 26개소인 WM특화점포를 2025년까지 100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점포 운영에 자체 '금융MBA(경영학 실무 석사 학위) WM 자산관리 전문 교육과정' 등 종합자산관리 분야 최고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컨설팅 실무역량을 겸비한 고급 인력들을 활용하게 된다.

이창기 전남본부장은 “WM사업은 단순한 수익 사업이 아닌 평생 고객을 확보하는 미래 핵심 사업으로 현재 전사적으로 집중 육성 중”이라며 “고객 자산증식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진정성 있는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 장학금 기탁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이 (재)남구장학회에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3일 이춘우(오른쪽) 부행장이 김병내 광주남구청 장에게 장학금을 전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MG지역상생프로젝트 내수경제 살리기

창립40주년 및 525새마을금고 날 이벤트!!

- | | |
|---|---|
| 대 상 대광새마을금고 MG체크카드 회원 | 내 용 MG체크카드 이용자 |
| 혜 택 - 하나, 5만원이상(영수증 합산 가능) 고급점시세트
- 둘, 3만원이상(영수증 합산 가능) 밀폐용기 세트
※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프랜차이즈매장 제외 | 신 청 MG체크카드 사용영수증 대광새마을금고 방문제출 <회원별 1회 한함(중복지급불가)>
※ 선착순 선물 지급(물품소진시 조기종료) |



본점(계림오거리) 062)222-5851

서남지점(문화전당역) 062)227-1532

자산지점(법원정문 앞) 062)222-1431